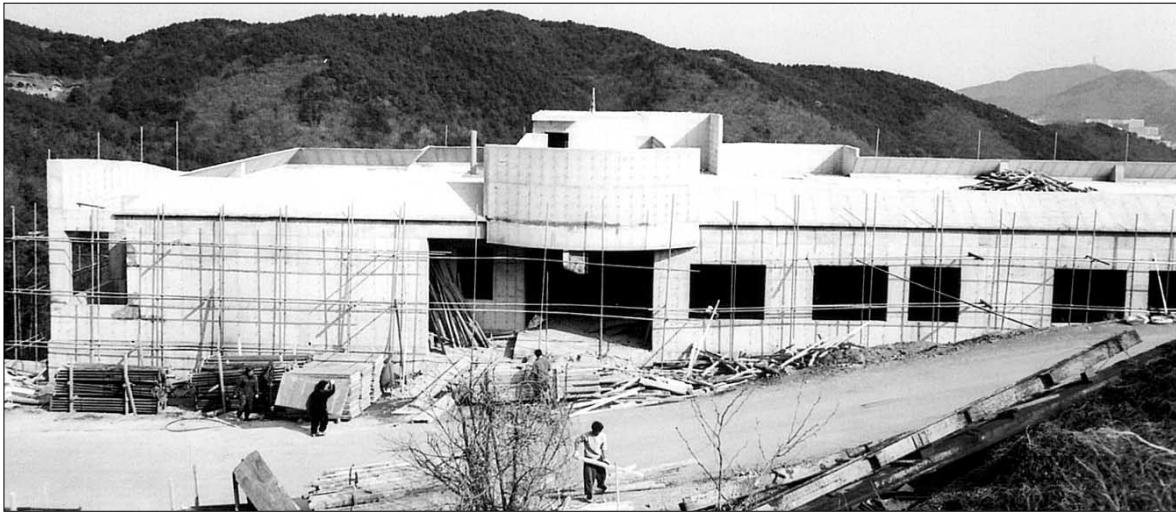


# 선암사 장례예식장 건립 차질

## 부산진구청 “협오시설 민원이유” 설계변경 불가결정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의 설계변경 불가결정으로 건립에 차질을 빚고있는 부산 선암사 장례예식장.

### 선암사 “주민들 동의” 행정소송 제기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문화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던 부산 선암사(주지 정야의) 장례예식장 건립이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의 설계 변경 불가 결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 선암사는 국가 권장 시설인

장례예식장 건립을 통한 불교식 장례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장례예식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00년 10월, 약 1천 평의 부지 위에 지상 2층 연건평 6천평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오다 2002년 5월 종단의 승인을

받아 장례예식장 건립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선암사는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에 의료시설로 설계 변경 신청을 냈으나 2003년 1월 8일 부산진구청은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일반주거지역과 대규모 공동주택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주거지역과 등산로 등에 인접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선암사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에 대해 선암사는 “부암3동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의 동의서도 받았고 완공 후 주민들에게 장례예식장을 무료 대여할 예정이어서 별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2월 10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암사 주지 정야스님은 “민원을 이유로 설계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도 없는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한 법원의 판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일부 지역민들의 이기적 발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이유로 대다수 지역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한 장례예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부산진구청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주거지역과 등산로 등에 인접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선암사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암사는 장례예식장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할 방침이며 장의차를 운영하지 않고 선암사 사찰 버스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번 입고 태우는 상복을 지양하고 개량한복을 대어, 불교식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선암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천미희기자

### 종무원 노조 필요성 제기

#### 참여불교 재가연대

최근 조계종 종무원 산하단체에서 비정규직 종무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 빈번한 가운데 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최근 홈페이지(www.buddha21.org)에 ‘권고사직 또는 일괄사표,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토론방을 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함에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일괄사표를 강요당하는 종무원들의 현실에 비춰볼 때 노동조합 결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은 토론방을 열어 “특히 인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투명공사’가 되게 하는 계기와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 턱нат한 스님 3월19일 방한

## 4월2일까지, 종교환경토론회등 참석

턱нат한 스님 방한 날짜와 인원이 확정됐다.

방한과 관련 프랑스 플럼빌리지를 방문하고 11일 귀국한 명진출판사 한상만 상무는 “스님은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스님 17명과 재가자 10명 등 30여명이 방한한다”고 말했다.

또 “방한 후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턱нат한 스님측으로부터 명진출판사와 후원단체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턱нат한 스님 방한 시 수경스님이 상임대표로 있는 종교환경회의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는 일반적인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 등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고, 스님이 발제를 하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각종 종교 성직자들이 토론을 하는 형식을 취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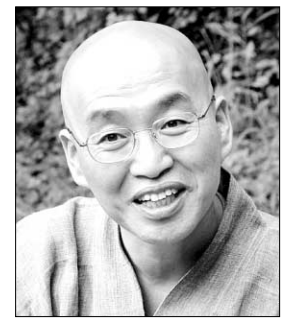
### 금강산 육로관광 시범단 송월주스님 등 4명 방북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기획실장 도현스님, 사회부장 양산스님 등 조계종 스님 4명이 금강산 육로관광 시범단으로 14일 방북했다. 시범단은 14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의 임시남북출입관리연락사무소에서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에 참가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들어갔다.

남동우 기자

### 법륜스님, JTS등 해외사업 손때

#### “지도법사로 수행지도에만 전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사진)이 좋은벗들과 JTS 이사장직 등 해외사업에서 물러나고 수행지도에 전념한다.

정토회는 5일부터 10일 경북 문경수련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4차 전원결사 1년간의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법륜스님은 일선에서 후퇴한 뒤

지도법사로서 수행지도에만 전념한다. 이를 위해 정토회는 인도 수자타 지역에 매입한 부지를 이용 명상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토회만의 수행체계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토회가 지향하고 있는 불교의 사회참여를 이끈 것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토대전편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토대전편찬은 △사회참여의 근거가 되는 경전 모음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깨달음의 글 △불교사상 △사회적 실천 방안 △현대에 맞게 맞는 수행법요집 등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남동우 기자

### 불교문화연구원 세미나

“조선불교사 논문 수가 원호한 명에 대한 것과 비슷하다. 연구 성과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지난 12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스님)이 <조선왕조실록 불교사료집>(전 23권) 완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 세미나는 조선불교사 연

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화엄사 중근기의 경우 화엄사에는 없었지만 그것을 쓴 유생의 문집에는 남아 있다. 유생들의 문집, 고승 전기, 사적기, 풍속화 등 기초 자료는 무궁무진한데도 손도 안 대고 있다”며 자기반성을 쏟아냈다. 이날 김 교수의 ‘홍분’은 역설적으로 <...불교사료집> 완간의

### “불교관련 기초자료 집대성 조선불교사 연구 1차 과제”

구에 대한 학계의 분발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조선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한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는 “조선시대 불교 이해 없이는 신라, 고려 불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 중국에도 한국불교통사가 있는데, 한국에는 제대로 된 한국불교통사가 없는 것도 조선불교 연구가 황무

의의를 보여줬다. 김 교수는 “자료집 간행은 조선불교사 연구를 크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기초 자료를 집대성해 간행하는 일이 조선불교사 연구의 일차적 과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9년 여 작업 끝에 1,893권 888책의 방대한 <조선왕조실록> 중 불교 관련 기록만을 발췌, 우리말 번역을

### 서울 3·1절 남북민족공동행사 3일간

## 북, 조불련위원장등 100명 참가

#### 베이징서 남북실무접촉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3·1절 남북민족공동행사의 구체적 일정이 잡혔다.

10일 ‘2003년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준)’ 실무접촉 대표단(단장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측 종교계 및 민족화해협의회와 가진 실무접촉

을 공개하고, 행사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는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 등 종교계 인사 60여명이 포함된 100여명의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3월 1일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본 대회와 ‘평화통일 기원의 밤’이, 2일에는 일본 역사왜곡 문제를 다루는 남북공동학술토론회가 진행된다. 특히 2일 오전에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남측의 각 종단이 집전하는 종교행사에 북측 종교인사들이 참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측 참가단은 28일 고려항공 전세기 편으로 서울에 온다. 남동우 기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 위덕대 도서관 이용주민 1만명 넘어

지난 2002년 1년 동안 지역주민 10,354명이 위덕대 회당학술정보원(원장 김태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위덕대의 지

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위덕대 회당학술정보원은 15만여권의 장서뿐만 아니라 전자

책과 전자저널까지 갖추고 있다.

위덕대는 회당학술정보원을 완공한 2000년 8월부터 개방했으며, 2001년 4,384명에 이어 2002년에는 10,354명으로 매년 2배씩 대학도서관 이용 지역주민이 늘고 있다. 김원우 기자

### 영광해피기장 철회추구

#### 원불교, 성지수호 집회

원불교 남녀 교무 1천200여명은 13일 서울 사직공원에서 교단의 성지(聖地)인 전남 영광의 해피기장 후보 선정과 해발전 중심의 전력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비상집회를 열었다.

남동우 기자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4일 해피기장 후보지 선정은 과학적 지질조사와 지역주민의 의사, 여론을 무시한 채 변칙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비민주적 밀실행정의 결과”라며 “원불교 전 교역자는 종교적 양심과 사명감으로 해피기장 건설과 발전시설의 추가 건설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관절염

### ↓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냉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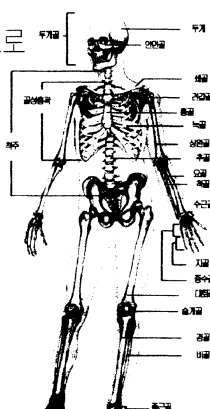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뚫듯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 성라 실버타운

▶경기도 기평소재 (유료양로원)

▶시설안내 ◀

- 숙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구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구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고
현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정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기평사무소: 경기도 기평군 상면 본부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분서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